

포스트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지속 가능한 교회

김두환 (인하대학교 연구교수, 미래변화에측연구소 소장)*
조철수 (미래변화에측연구소 부소장)**

- I. 들어가는 말
- II. 코로나 팬데믹과 교회의 본질
 - 1. 예배의 본질과 적용
 - 2. 예배의 유형
 - 3. 성도의 교제
- III. 교회의 지속가능성
 - 1. 지속가능성
 - 2. 교회의 성장
 - 3. 성장주의 경계와 대안
 - 4. 교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 IV. 지속 가능한 교회
 - 1. 교회 성장에서 공동체 성장으로
 - 2. 성숙한 성장
-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0.48.01>

* 주저자, dookimm@gmail.com

** 교신저자, goodchul@gmail.com

• ABSTRACT •

Sustainable Church in the COVID-19 Pandemic Era

Research Prof., Kim, Doohwan (Inha University)
Vice-director, Jo, Chulsu (Future Changes Forecasting Institute)

The COVID-19 pandemic has paralyzed many functions of society with its rapid infectious and fatal symptoms. In the absence of vaccines and treatments, social distancing and none-face-to-face contact became important personal quarantine. Due to the COVID-19 crisis, on-site worship and lunch fellowship are banned or limited in the church. The Korean church is facing a crisis that it has never been experienced. In this situation the sustainability of church is emerging from the reverse thinking. In a non-contact state due to social distancing, the church performs the online worship service instead of on-site worship and shares the fellowship through video calls to keep the communality of being one body of Christ. This paper will examine that the expansion of online worship and fellowship in a virtual space contribute to restore the essence of the church and the communality as the basis for church sustainability in the post COVID-19 pandemic era. In addition the governance composed of pastors and lay members should not fall into pursue church growth and religiousity, but try to realize that the church is the community of life, and to establish a new relationship with the society outside the church with high morality.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at the sustainability of the Korean churchfacing the post COVID-19 era can be achieved in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a society based on communality through the organic worship and fellowship.

Key words: COVID-19, Essence of Worship, Fellowship of Saints, Sustainability, Communality

I. 들어가는 말

인류는 코로나19 감염병을 겪으면서 사회적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확진자 격리 및 동선 파악, 비접촉 생활방역 등으로 생활습관이 크게 바뀌었다. 온라인 교육과 회의, 재택근무, 원격 진료 시스템 등 비대면 소통이 활성화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교회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현장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당 정원의 일부만 출석하여 거리두기를 지키며 앉을 수 있다. 대신 온라인 라이브로 주일예배를 드려야 하고 헌금은 계좌이체나 온라인 송금을 통해 이루어진다. 주일예배에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는 가정은 교회 주차장에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라디오 FM 주파수를 송출하여 드라이브인(drive-in) 예배를 드리도록 했다. 성만찬도 예배당 밖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이루어졌다. 교인 관리는 전화 심방이나 영상통화로 대체되고 성경공부나 제자훈련도 영상통화를 이용해 이루어졌다. 코로나19 위기는 교회가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최대한 이용하게 되는 변곡점을 만들어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지 자문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위기는 한국교회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예배가 제한되어 방송과 온라인으로 라이브 예배를 드리고 있다. 2020년 5월 6일 생활방역이 시행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현장예배가 재개되었지만, 예배 전후에 방역이 이루어져야 하고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체온을 재고 손 세정제로 소독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2m 간격으로 떨어져 앉아야 한다. 그리고 현장예배 후 갖는 점심 식사 교제는 금지되었다. 한국교회와 해외 한인교회에게 주일예배 후 점심식사 친교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간이다. 주일성수 신앙이 주일 현장예배와 연결된 한국교회와

전 세계 한인교회는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다. 몇몇 교회들은 주일성수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주일 현장예배와 식사를 하는 소모임을 강행하였다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였다. 특별히 해외 한인교회의 경우 주위의 타인종 교회는 주일예배 후 식사 친교가 없는 상황 속에서 유독 한인교회만 점심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은 자칫 코로나 방역에 역행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각 교단은 주일예배 지침을 내리면서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도 현장예배가 드러져야 하되 다양한 형태의 예배가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김명실은 주일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예장 통합교단의 방침을 찬성하면서 특수한 상황 속에서 잠정적으로 주일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은 주일성수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예배당이 허락하는 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여러 번 현장예배를 드리는 대안을 제시하였다.¹⁾ 가정에서 드리는 경우라면 두세 가정이 모여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헌금순서를 가지며 자녀들도 동석하는 예배를 권장했다. 김동건은 확일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강요하지 말고 현장예배를 드리게 하되 지역에 따라 교회 구성원에 따라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교회와 교단은 예배는 생명이라고 외치면서 정부의 행정 조치에 불응하여 벌금을 무릅쓰고 현장예배를 강행했다. 식사하는 소그룹 모임이 행정명령으로 금지되었음에도, 일부 교회의 소그룹 모임과 기도 모임, 수련회 모임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사례가 보도되었다. 이는 현장예배와 함께 식사를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1) 예장뉴스, “주일성수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다,” <http://www.pck-goo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07> (2020.05.21. 접속).

수 없는 거룩한 행사로 받아들이는 종교 현상학의 한 모습이다.²⁾ 온라인 예배, 비대면 교제는 교회의 본질을 이루는데 부족하다고 이해했기 때문이다. 다양해진 주일예배, 성도의 교제, 영성의 형태로도 교회의 본질을 이룰 수 있는지 신학자와 목회자에게 숙제를 남겼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은 교회의 현장예배, 식사교제 및 소그룹 모임을 방역을 위한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본 논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교회의 본질적 기능이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한인교회의³⁾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신학적으로 기독교 윤리학적으로 조명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예배와 교제의 형태가 온라인 기반으로 바뀔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되는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강화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화합하여 교회가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코로나 팬데믹과 교회의 본질

일반적으로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은 사랑의 봉사(디아코니아), 말씀의 선포(케리그마), 성도의 교제(코이노니아), 예배(레이투르기아), 가르치는 일(디다케) 5가지 단어로 설명된다.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재고해야 할 교회의 본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야기된 비대면 예배와 비대면 성도의 교제이다. 모이기에 힘써 예배드리고 식사 교제를 통해 한 몸 된

2) 노윤식은 산, 하늘, 건물을 성물로 여기는 현상으로 거룩한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종교현상으로 보았다. 그는 한국교회의 독특한 종교현상이 토착화되어 한국교회의 성장을 이루었다고 주장한다. 노윤식, “현대 한국 교회 성장에 대한 종교현상학적 이해,”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0(2001), 237-262.

3) 본 논문은 한국교회와 해외 한인교회를 통틀어 한인교회로 부른다.

4) 제혜중, “교회의 5대 본질적 기능 재고찰을 통한 포스트 코로나 교회론,”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0)(2020) 233-246.

공동체성이 도전받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로 현장예배가 제한되면서 촉발된 온라인 라이브 예배는 예배의 본질과 예배의 형태를 재고하게 했다. 다양한 예배의 형태가 가능한 것은 예배의 형태가 변할지라도 예배의 본질과 기능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신학적 확신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예배의 본질에 대한 신학적 고찰을 통해 현장예배로 지켜왔던 예배의 본질을 온라인 예배에서도 이루어갈 수 있을지 탐구 하겠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교제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1. 예배의 본질과 적용

예배의 본질을 말씀과 성찬 두 예배의 요소에서 찾을 수 있다. 들리는 말씀으로 설교와 보이는 말씀으로 성찬이 갖는 의미가 온전한 예배의 본질이 된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의 조치로 현장예배가 제한되고 비대면 예배로써 온라인 예배가 시행되면서 말씀선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온라인 예배의 공간이 실제적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상의 공간이라는 이유 때문에 신학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다. 기독교의 예배는 공동체적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⁵⁾ 예배의 공동체성은 성만찬으로 실현되지만 성찬은 모이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성찬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한 몸 된 공동체가 현장에서 체험하는 예배의 본질적 요소이다. 조기연은 예배의 본질을 예수님이 주재한 만찬에서 찾고 최초의 교회 공동체는 예배를 스스로 창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명령받았다고 말한다.⁶⁾

5) 박해정,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온라인 예배에 대한 고찰,” 『신학과세계』 98(2020), 175-216.

6) 조기연, “기독교 예배의 본질과 의미,” 『기독교 사상』 652(2013), 26-34.

성찬을 매 주일예배 중에 진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Church of Christ, Christian Church)는 말씀과 성찬을 분리할 수 없는 예배의 본질로 삼았다. 그러나 대부분 한국교회와 해외 한인교회는 말씀선포를 통해 예배의 본질을 찾은 듯하다. 말씀선포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면서 모든 예배순서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주일 현장예배에서도 성찬은 모임 때마다 혹은 정기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현장예배가 성찬을 간헐적으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에서 성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성찬이 없는 주일예배에 익숙한 한인교회 교인들에게는 큰 이질감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라이브 예배에서 성찬의 본질과 의미를 살리면서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고 예수님과 한 몸 되는 성찬식을 창조적으로 집행하는 목회자의 결단과 교인들의 동의가 필요해 보인다.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과 한 몸 되겠다는 고백으로 모든 곳에서 예배하는 제자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다. 예수님의 인격, 정신, 사역, 말, 태도, 행동, 성품, 미래 등 그분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삼아 제자가 되는 것이다.

2. 예배의 유형

코로나19 위기로 자택대기령이 내려지면서 현장예배가 불가능해졌다. 일부 교회가 현장예배와 소그룹 교제를 강행하여 확진자가 나오면서 교회를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반지성적 공동체로 보려는 시각이 생기고 있다. 방역당국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현장예배를 제한하고 있고, 교회는 신앙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근거로 현장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지속하려 하고 있다. 이런 갈등 속에서 기독교 윤리의 공공성을 되새겨 교회의 사회적 책임, 사회참여, 사회적 제자도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비대면 예배의 유형을 찾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온라인 예배나 방송 채널이 있어서 실황 예배를 중계할 수 있는 구조와 장비가 있는 교회들은 어려움 없이 온라인 라이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그렇지 못한 교회는 SNS나 메신저의 라이브 기능을 이용하여 또는 영상통화 앱을 이용하여 동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동안에도 이런 형태의 예배가 있었지만,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현장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었다. 코로나 위기는 예배의 본질과 기능이 되새기고 창조적인 예배의 형태를 발견하게 했다. 현장예배를 보완하는 부속물 같이 여겨졌던 온라인 예배가 코로나19 시대에 주요 예배로 드러지면서 한국교회는 예배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예배의 유형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현대교회의 예배 유형에 대해서 다니엘 베네딕트(Daniel Benedict)와 크랙 밀러(Craig Miller)는 현대적 예배의 형식에는 전통적 예배형식에 현대문화를 반영한 예배와 전통예배와는 전적으로 구별되는 응용된 예배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⁷⁾ 이 장에서는 현대적 예배의 유형에 대한 신학적 논의를 제시하고 온라인 예배가 갖는 의미를 찾고자 한다.

온라인 예배는 전통예배와 구별되는 현대적 예배의 한 형태이다. 박은규는 현대교회 예배에 대해 전통교회의 예배와는 다른 다양한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대적 예배는 동시대(contemporary) 사람들에게 적합한 예배라고 정의한다.⁸⁾ 현대적 예배는 현대인의 문화, 언어생활, 자유로운 표현, 현대적 감각, 세계관에 관한 그리스도적 의미를 창출하는 예배이다. 전통예배의 골격은 없지만 잃은 양을 찾고 동시대 현대인의 고민과 고통에 답하고 치료와 구원의 계기를 마련하는 예배이다. 팀 라이트(Tim Wright)와 쟈 라이트(Jan Wright)도 현대적 예배를 동

7) Daniel T. Benedict and Craig Kennet Miller, *Contemporary Worship for the 21st Century: Worship Or Evangelism?* (Discipleship Resources, 1994).

8) 박은규, 『21세기의 예배』(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166.

시대적 예배라고 정의하면서 전통적 예전 중심의 예배형식이 가지고 있는 안정성, 통일성, 정체성의 가치 위에 현대적인 예배 혁신 요소가 융화되었다고 말한다.⁹⁾ 동시대 예배는 현재의 언어와 문화로 복음의 소통을 추구한다. 현대교회의 예배는 현대인에게 최적화된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예배의 본질을 지키며 현대인의 영적 갈증을 해결하는 예배라고 할 수 있다. 현장예배와 온라인 예배는 모두 현재의 언어를 사용하고 문화의 기반 위에 드러지는 동시대적 현대예배이다.

온라인이나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는 일종의 가상공간에서의 예배이다. 가상공간 공동체가 교회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에스테스(Douglas Estes)는 가상교회의 교회론이 도전받는 이유는 신학자와 목회자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현실 공간이든 가상공간이든 에클레시아 공동체는 교회라고 주장한다.¹⁰⁾ 가상교회는 사회적 장벽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힘을 지닌 완전히 새로운 교회의 형태이다. 그동안 교회의 본질과 의미 형태를 논의할 때 모든 전제가 현장예배였지만 가상교회는 만져서 알 수 있는(tangible) 장소가 아니다. 모든 곳에서 누구나 가상교회에 참가할 수 있어 교회의 지역성(locality)을 초월한다. ‘모이기를 힘쓰라(히 10:25)’는 권고는 현실 모임뿐만 아니라 가상공간에서도 가능하다. 가상교회의 정당성은 온라인 예배가 예배의 본질을 지킬 수 있는 가상예배임을 확인해 준다.

유재원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다양한 예배의 등장은 물리학에서 말하는 복잡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 예배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표현하면서, 유기적(organic) 예배가 한국교회의 미래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¹¹⁾

9) Tim Wright, *Contemporary Worship: A Sourcebook for Spirited-Traditional, Praise and Seeker Service*, (Nashville: Abingdon Press, 1997), 187.

10) Douglas C. Estes, *SimChurch. Being the Church in the Virtual World*, (Grand Rapids: Zondervan, 2009), 22-24.

11) 유재원, “복잡계 이론을 통한 한국 교회의 유기적 예배 가능성에 관한 연구.이머전트

그리스도의 한 몸 되는 교회를 유기적 교회라고 하며 유기적 예배는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했던 것처럼 유기적 예배는 장소의 한계를 초월한다. 예배를 복잡계 현상으로 묘사한 것은 복잡계가 가지고 있는 고유특성인 창발성 때문일 것이다. 창발성은 복잡계가 임계 순간에 프랙탈(fractal)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 형식과 장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똑같은 구조가 반복되는 기하학 구조로 자연 속에서 활엽수 잎의 분포, 해안선, 번개의 모양 등에서 나타나고 유기체의 뇌와 폐, 신경 구조 등에서 나타난다. 이 개념을 적용하면 온라인 예배는 장소에 상관없이 프랙탈처럼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모든 곳에서 경험하는 유기적 예배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현장예배는 같은 장소에 모여 드리는 예배로 지역에 국한되지만, 온라인 예배는 한 곳에서 드리는 현장예배 실황을 모든 곳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다.

유기적 공동체는 한 몸 된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연결되어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는다. 한 몸 된 교회의 예배가 멀티미디어와 온라인과 방송으로 연결되어 같은 시간대의 현장예배를 체감하고 공감함으로써 예배의 본질을 유지할 수 있다. 예배의 현장에 있든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든지 방송 채널을 보고 있든지 시간과 장소가 다를지라도 예배의 감격과 말씀의 은혜와 한 찬양과 기도 소리를 내며 예배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되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로 촉발된 온라인 라이브 예배의 형태는 유기적 예배로 확장되어 예배의 본질을 지킬 수 있는 대안 예배라고 할 수 있겠다.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는 가상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며 새로운 관계와 공간을 구성하여 비대면 시대에

교회 운동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172-189.

오히려 다면(multi-faceted) 예배, 다면 교제를 이루어 갈 수 있다.¹²⁾

3.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koinonia)는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교인들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교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바울이 세운 교회는 모두 개인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다. 바울에게 교회는 장소나 건물이 아닌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사람들이 모임으로써 이루어진 가정교회였다. 바울은 여러 교회에 편지하면서 ‘집에 모이는 교회’에 대해 언급한다(고전 16:19, 롬 16:3-5, 몬 2, 골4:15). 가정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원형과 본질을 일깨워 주고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의 삶에 대한 이해를 준다. 바울에게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였다. 초대 가정교회가 보여준 교제의 모습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음식을 먹는 모습은 바로 한국교회의 전형적인 성도의 교제이다. 현대교회도 소그룹 안에서 섬김과 환대의 사역을 통해 내적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 성화 되어 간다.¹³⁾ 가정교회로서 소그룹은 모든 시대와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교회의 본질이며 형태이다. 소그룹 모임의 주체자, 인도자는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소그룹 리더인 목자는 목자들의 본 되신 목자장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므로 소그룹은 목자장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성은 사랑으로 교제하는 소그룹 목장에서 시작된다. 공동체성을 유지하며 그 안에서 섬김과 제자도를 훈련함으로써 깊은 영성과 돌봄 사역에 참여하게 된다.

12) 이은경, “언택트 시대의 예배와 신앙교육,” 『기독교교육정보』 66(2020), 295-322.

13) 강정원, “가정교회 소그룹과 교회의 건강성,”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43-45.

성도의 교제는 본회퍼의 말처럼 일상의 영역에서 교회의 공간을 회복하는 것임을 증명한다.¹⁴⁾ 온라인 소그룹 모임은 코로나19 위기의 시간에도 성도의 교제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면서 선교적 교회 정신으로 확장하면 비신자를 전도하는 기회가 된다. 이것은 선교적 교회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예배에 참여할 수 없고 소그룹으로 대면 교제를 할 수 없을 때 오히려 선교적 교회의 정신을 일깨워 복음을 안고 온라인 공간으로 생활공간으로 들어가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성도의 교제의 주체는 이 세상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무명의 약자들을 구원하고 섬기신 그 사랑이 성도의 교제 근간이다. 대면하면서 모이는 소그룹 모임이든 온라인상에서 비대면으로 모이든 성도의 교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임 때 이루어진다.

III. 교회의 지속가능성

한인교회에게 현장예배와 예배 후 갖는 식사 교제는 교회의 본질과 연결된 중요한 모습이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식사 교제를 나누는 교회의 모습은 한인교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구심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배경에서 현장예배가 제한되고 식사 교제를 할 수 없는 코로나19 팬데믹 환경은 한인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본질에 대한 재고를 요구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인교회가 유지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이 될 수 있을지 자문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은 교회의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교회를 고민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다시 짚어 봐야 할 시기이다. 교회 성장이론이

14) 강성영, “본회퍼의 교회론: 십자가 아래 있는 타자를 위한 교회,” 『기독교사상』 677(2015), 10-17.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지속가능성 논의는 교회의 생존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지속가능성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얻게 된 통찰력을 팬데믹 위기에 놓인 한인교회의 지속가능성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1. 지속가능성

사전적으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특정한 과정이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현대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시대라고 지칭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경제적 성장에만 집중된 발전 패러다임에다 환경적, 사회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현재의 자원을 미래의 다음 세대가 향유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개발한다.¹⁵⁾ 지속가능성은 지역공동체, 지역 사회 및 지방정부의 경영전략을 뒷받침하는 주요개념이 되었다.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은 지역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활동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핵심철학이다.

고용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가 살림에 기초한 개인, 사회와 정치, 심지어 우주적인 평화가 보존되는 공동체로 보았다. 그리고 교회를 살림을 지속해야 할 청지기로 보았다.¹⁶⁾ 신학적으로 지속가능성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모든 것이다. 모든 생명체는 상생하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한다. 하나님은 인간이 거할 수 있는 모든 자연환경을 조성하신 후 인간을 창조하시고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우주의 조건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작용하여 모든 생물을 지속 가능하도록 만드셨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문화명

15) 김완두, "지속가능 자연모사기술," 「기계저널」 56(2016), 32-36.

16) 고용수, "생명공동체를 지향하는 교육목회," 「장신논단」 27(2006), 441-469.

령(창 1:28)은 지속 가능한 생명공동체를 구현하라는 위임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세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신자를 동역자로 세우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계를 이끄시고,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성경과 신학, 과학과 기술,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연구와 토론을 통한 학문 활동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뒷받침하는 지혜와 지식이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연 속에 있는 원리와 법칙을 따라 창조세계가 운행되고 모든 만물이 상생할 수 있도록 관여하신다. 그리고 교회가 지속 가능한 창조 사역에 동참하도록 권유하신다. 한네스(Hannes Knoetze)는 지속 가능한 발전은 정부와 정치가 주도하는 개발과 함께 예수님의 몸 된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디아코니아(*diakonia*, 섬김) 사역을 통전적으로 감당할 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¹⁷⁾

2. 교회의 성장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엡 4:14)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교회 성장의 개념은 성장과 성숙을 포함하지만, 그동안 한인 교회의 성장은 규모의 성장으로 측정되어 물리적이고 외적이며 정량적인 성장에 집중되었다. 교회 성장과 성숙의 요소는 말씀, 예배, 성령의 능력, 기도, 리더십, 제자도, 전도, 헌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근본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에 기초한다.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도록 결단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인은 인격과 인성이 변화되는 증거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사람들은 성령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마 5:16). 칼 바르

17) Hannes, Knoetze, "Diakonia Trinitatis Dei as/and Transformational Development," *The Ecumenical Review*, 71(2019), 147-160.

트(Karl Barth)는 교회 성장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 성장의 주체도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강조하면서 ‘교회 성장은 교회가 살아있다는 표현이며 성장해 나아가야만 주님의 몸으로 완성된다. 교회 성장의 힘은 신적인 능력이 나타남이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내적인 능력임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 살고 그리스도의 자기 증거로써 성령에 의해 성장한다.’라고 말한다.¹⁸⁾ 결국, 교회 성장을 주도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열심히 모이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이로 인해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신다(행 2:46, 47). 이 원리가 교회의 성장으로 이어진다.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표상으로서 정량적으로 성장하고 정성적으로 성숙하는 것이다. 정광일은 교회의 성장과 성숙은 복음화, 제자화, 영성화의 단계를 거친다고 주장한다.¹⁹⁾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능력으로 비신자를 전도할 때 복음화(evangelization)가 이루어진다. 교회가 초신자에게 침례(세례)를 주고 말씀으로 제자도를 가르치며 (discipleship),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으로 내면세계가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성을 가진(spiritualization) 제자로 양육하여 다시 세상으로 파송할 때 성장의 선순환이 일어난다. 교회의 성장은 자체 교회를 키우는 일이 아니라 교회의 영향력이 사회 속으로 침투해 가게 하는 것이다. 맥가브란(Donald McGavran)은 제자도와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을 강조하면서, 잃은 양을 찾아내어 이들을 우리 안에서 잘 목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훌륭한 제자가 되게 하고 지역사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할 때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²⁰⁾

18) 박찬섭, 『교회발전과 성령은사』(서울: 엘멘출판사, 1990) 재인용, 71.

19) 정광일, “영성과 공동체-복음화, 제자화, 영성화,” 『헤르메네이아 투데이』 46(2009), 187-195.

3. 성장주의 경계와 대안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 교회 성장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성장주의에 빠지게 되면 역기능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교회 성장주의는 교회가 자라나야 할 유기체임을 주지하면서 교회가 유기체라면 성장해야만 한다는 논리를 펴는다. 성장주의에 빠진 한국교회를 진단하면서 박영신은 빠르게 이루어진 한국의 경제성장은 물질적 풍요를 극대화하기 위해 비윤리적 능력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목적보다는 수단을 강조하게 되었는데 이런 성장 경험이 한국교회에 그대로 이식되어 교회의 성장주의를 낳았다고 보았다.²¹⁾ 마찬가지로 이명구는 1970년대 한국 사회가 고속성장을 겪으면서 세속화 현상이 일어났는데 한국교회는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여 동화되었다고 진단한다.²²⁾ 성장주의에 빠진 교회는 물질만능주의와 배금주의로 물신을 숭배하는 맘모니즘이 팽배하고, 프로그램 중심의 이벤트성 가시성 목회를 하고, 개교회주의에 빠져 개교회의 유지와 확장에 몰두하게 되었다. 성령님을 인격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도구화하며, 사역 중심의 역기능적 교회가 되어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탈진하게 되어 성장주의로 인한 부작용을 겪었다. 교회의 유기체 성격을 오용하여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면 과정과 방법은 고려하지 않고 결과에만 집착하는 세속화된 성장 논리가 교회를 성장주의에 빠진 공동체로 만들었다. 이명구는 성장주의에 빠져 역기능적으로 작용하는 한국교회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20) 홍영기, 『선교와 교회성장』(서울: 기독교서회, 2004), 202-203.

21) 박영신, 정재영, 『현대 한국사회와 기독교-변화하는 한국사회에서의 교회 역할』(서울: 한들출판사, 2006), 78.

22) 이명구,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친 성장주의에 대한 극복 방안 연구,” 『기독교 철학』 9(2009), 157-187.

으로 세속화된 문화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엇보다 목회자의 영적 회복을 요구하였다.²³⁾ 성공한 목회자라고 해서 제왕처럼 등극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권리와 기득권을 내려놓고 비우며 낮아지는 겸손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바로 세우는 목회자 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과거 교회가 경험한 성장주의 부작용은 미래교회의 지속가능성의 구체적인 방안을 선별하는 전례가 될 수 있다. 성장주의가 정상적인 성장을 왜곡시켰다면 잘못된 지표를 찾아내어 개선하고 창조적인 지표를 제안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성경적이고 선교적인 성장의 모델을 연구해 볼 수 있다. 유기체적 교회는 국가와 지역사회 생태계 안에서 다른 요인들과 함께 성장한다. 교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논의는 바른 성장을 이루는 해답이 될 수 있다. 교회를 한 개체로 보지 않고 상생하는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보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닫고 세상과 단절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복음으로 하나님과 연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지속 가능한 교회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 상생하는 생태계의 촉진자가 될 수 있는 실제적인 지표를 설정해 스스로 채찍질하는 동력작용이 필요하다.

4. 교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교회의 지속가능성은 교회 성장을 뛰어넘어 지역사회 공동체에 생기를 주어 선순환하게 하는 성장 동력이다. 2016년 교회 성장클럽이 주최한 미래교회 성장 동력 포럼에서 신동욱은 강력한 리더십 발휘, 역동적인 예배, 상식이 통하는 교회행정, 어린이와 청소년 등 가정을 중시하는 목회, 지역사회 봉사를 통한 교회 이미지 수정을 교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

23) 위의 글.

동력으로 보았다.²⁴⁾ 그리고 지속 가능 지표는 출석 교인 숫자가 아니라 일터로 파송되는 교인 숫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포럼에서 박해령은 교회가 하나님의 봉사자, 구원의 도구로서 자기 개혁의 정신과 초대교회가 가진 원형적 교회의 순수한 모습으로 환원해 가는 노력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실제적 교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은 교회를 구성하는 인적 요소 즉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에서 비롯된다. 조재국은 대교회로 성장한 한국교회들을 분석하여 한국교회의 성장 동력을 목회 철학, 목회자의 리더십, 역동적인 예배, 거버넌스(governance, 행정) 개혁, 평신도의 사역훈련, 가정 중심의 목회, 지역사회의 봉사라고 제시하였다.²⁵⁾ 조재국이 살펴본 교회 성장의 요소는 크게 예배와 교육, 행정과 사역의 면으로 볼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교회의 성장 동력은 목회자와 평신도 사역이 융합하여 증강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교회의 목회자 리더십과 평신도 사역은 소그룹과 공예배의 두 날개 구조를 가능하게 한다. 교회의 지속가능성은 목회자의 영적 리더십, 평신도의 제자도, 교회의 거버넌스가 복합적인 동력으로써 작용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돌연히 일어나는 창발적(emergent)인 현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교회의 거버넌스는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가 함께 행정과 정책 결정을 주도한다. 목회자는 평신도 리더십을 확장하고 평신도 리더들은 목회자의 목회철학과 비전이 교회의 거버넌스와 동행하도록 보완하면서 민주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힘쓸 수 있다. 코로나19 시대에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되는 예배와 교제에 도전을 받고 있다. 예배와 교

24) 기독교타임즈, “미래사회서도 교회성장 지속가능,” <https://www.km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144> (2020.05.06. 접속).

25) 조재국, “한국교회 성장 동력의 분석과 평가,” 『신학과 실천』 46(2015), 413-439.

제를 통해 신앙의 가치를 지속하려는 교회의 기능이 방역당국의 조치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 시기에 교회의 거버넌스는 기독교 윤리의 공공성을 되새기고 교회가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신앙과 이성이 조화된 결정을 내려야 한다.²⁶⁾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며 사회적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기 때문이다.

IV. 지속 가능한 교회

1. 교회 성장에서 공동체 성장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탄생한 새 생명의 공동체이다.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연결하는 사명을 맡았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을 목표로 사역해 오면서 타자를 배려하지 못하고, 복음이 필요한 가난한 자들을 섬세하게 돌아보지 못했다. 지속 가능한 생명 공동체의 회복은 WCC 총회의 주요한 주제이기도 하다.²⁷⁾ 교회가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필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고,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며,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환경보전 정책과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태계의 균형을 주도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은 지역사회의 영적 환경을 계측한다. 교회의 좋은 소문은 비신자들에게 전도 가능한 잠재력(potential)을 높이고 지속해서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운동량(momentum)을 일으킨다.

교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공동체와 상생하는 생존방식을 창조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개인의 생존만을

26) 유경동, “코로나19 시대의 웨슬러지 기독교 윤리,” 『신학과세계』 98(2020), 145-173.

27) 손의성, “지속가능한 생명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교회의 지역복지 거버넌스 참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2(2014), 311-336.

추구하면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 공동체의 생존이 이루어져야 개인도 산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염성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가능성을 줄이는 배려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평소와 다른 비대면 모임을 하게 했다. 자택대기령으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없다고 불평하는 일은 이기적인 생존방식을 사는 사람이다. 자신은 증상이 없어 클럽에 갔다가 다수의 사람에게 코로나바이러스를 퍼뜨리고도 거짓말하는 예가 바로 그렇다.²⁸⁾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때 공동체가 산다. 그리고 공동체가 자신을 돌본다. 지역사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교회가 살고 비신자를 전도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가 복음화되어 정부와 정치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때 교회는 평화하고 배가가 되는 전도의 일을 할 수 있다.

2. 성숙한 성장

한국은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집단감염으로 고전했다. 그러나 철저한 코로나 방역으로 이를 이겨내었을 때 한국은 프리미엄 방역 국가로 인정 받았다. 어느 정도 코로나 감염이 안정되었을 때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나라와 도움을 요청하는 국가에 진단 장비를 지원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비접촉 조치가 있었지만 프로 축구와 프로 야구가 개막되어 미국에서 한국 야구를 중계하고 유럽에서는 한국 축구를 중계하면서 K-팝, K-드라마, K-푸드, K-뷰티, K-e스포츠, K-웹툰에 이어 K-볼 열성 팬(fandom)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성장과 발전의 발판으로 삼은 결과이다.

28) 동아, “거짓말 또 거짓말...이태원발 확진자 최소 154명,”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516/101066600/1> (2020.05.19. 접속).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위기로 어느 때보다도 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지역자치장이 현장예배를 자제권고 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모이는 일이 생겼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야간에 기도 모임을 하는가 하면, 풍문으로 떠도는 민간방역을 목회자가 부추겨 집단감염을 일으키고, 극우 보수정치기들이 벌이는 정치 도박에 편승하여 방역방침을 무시하면서 현장예배를 추진하는 등 사회가 교회를 염려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²⁹⁾ 프리미엄 정부로 인정을 받는 것과는 너무 대조적인 현상이다. 합리적이지도, 인격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교회의 이미지로는 지역전도가 이루어질 수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제도에 부응하는 방역을 실행해 사회기관과 협력하는 관계성을 회복하여 도덕적으로 본보기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³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한인교회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교회의 본질적 의미와 기능을 되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배의 본질과 기능은 현장예배나 온라인 라이브 예배로도 바뀌지 않을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공간에서 유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자의 마음과 정성과 헌신으로 점철된 산제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말과 태도와 행동을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로 드리며 예배 속으로 들어갈 때 예배드리는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진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현장예배나 온라인 예배라는 형태를 초월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고, 예수님의 남은 십자가를 지고 성령님의 음성을 좇아 살 때 신자는 성숙해진다. 예배와 교제를 통해 예수님의 한 몸 되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숙한 성령의 열매를

29) 김광수, “도래한 포스트 코로나, 과거에 갇힌 교회,” 『기독교사상』 740(2020), 66-73.

30) 박우영, “새로운 관계성을 향한 관용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적 이해: 웬디 브라운(Wendy Brown)의 관점을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50(2020), 262-263.

맺게 된다.

예배를 통해 선포된 말씀과 예배의 감격은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에 밑거름이 된다.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충실히 선포하여 현장예배의 교인이든 온라인 예배의 교인이든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써야 한다. 교회 거버넌스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숙하게 나라의 방침에 협력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의 성숙함을 부흥의 실마리로 사용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마음 밭에 뿌려졌을 때 열매 맺게 하신다.³¹⁾ 교회가 성숙하면 교회 공동체는 성장하고 지속 가능해진다.

V. 나가는 말

한국교회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변화 요구에 효과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회의 본질적 기능인 예배와 교제가 현장예배와 대면 교제의 형식으로 종교화된 일부 한인교회는 정부의 방역조치와 갈등을 빚거나 비지성적 집단으로 세상에 비친다. 포스트 코로나에도 교회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교회 밖 사회와 새로운 관계성을 맺어야 하는데 그것은 세상과 갈등하는 종교성을 배제하고 새로운 예배와 교제의 형식으로 공동체성을 유지하며 사회가 추구하는 지속가능성에 동참하여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프리미엄 교회의 거버넌스는 교회의 본질이 종교성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추구하도록 뜻을 모으고 실천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온라인 예배형식과 비대면 교제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한 몸의 지체라는 공동체성

31) 조용훈, “산상설교의 여섯 가지 반체에 나타난 윤리적 해석과 그 현대적 의미에 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45(2019), 134-136.

을 응용해야 한다. 교회 거버넌스가 기독교 사회윤리의 주체가 되어 지속 가능성 추구가 교회 성장론에 함몰되지 않으면서 사회와 미래의 다음 세대를 생명의 관계로 엮을 수 있도록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사회로부터 도덕적 신뢰를 회복하여 사회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와 해외 한인교회가 현장예배 대신에 온라인 예배로 식사하는 성도의 교제 대신에 비대면 교제를 실행하면서 현장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대처하며 겪는 혼란을 종교 현상학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교회의 본질을 예배와 교제의 본질로 좁히고 이를 신학적으로 고찰하여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요구되는 교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교회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언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첫째로 예배의 본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동시대를 반영하는 유기적 예배의 형태로 확대될 수 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wig하는 영적이면서 사회적인 기관으로 교회의 본질과 기능은 어떤 시대,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영혼을 구원하여 진리를 가르쳐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관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의 기능을 주도한다. 모든 형태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체험하며 성령님께 순종한다면 예배의 본질은 지켜진다. 온라인 예배가 익숙하지 않겠지만 교회의 본질을 되새기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로 성도의 교제는 서로를 모이게 하는 구심력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을 때 일어난다. 모든 공간에 그의 임재를 인정하고 서로 비대면 상태로 모이는 소그룹일지라도 그의 얼굴을 대면하며 교제를 나눌 때 성도의 교제는 본질을 회복한다. 비대면 교제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

며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할 때 성도의 교제는 풍성해진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상태는 예배와 교제의 본질을 재정립할 기회가 된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교회의 지속가능성은 다양한 예배와 교제의 형태를 교회의 본질에 맞게 수용할 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교회의 지속가능성은 교회의 성장 관심을 성숙으로 바꾸고 성장의 요소를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요소로 삼을 때 일어난다. 목회자의 설교와 영적 리더십이 평신도 지도자의 역량과 융화되어 건강한 교회의 거버넌스가 성숙하게 실천될 때 교회의 지속가능성은 자연스럽게 창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교회의 존재와 지속가능성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속에 성경 말씀이 청사진이 되어 현대교회에 제시된다. 신학은 성경을 해석하고 교회를 조명하여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 교회의 성장과 성숙은 주님 다시 오는 날까지 끊임없이 이루어 가야 할 교회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동력이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도 교회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나침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성영. “본회퍼의 교회론: 십자가 아래 있는 타자를 위한 교회.” 『기독교사상』 677(2015), 10-17.
- 강정원. “가정교회 소그룹과 교회의 건강성.”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고용수. “생명공동체를 지향하는 교육목회.” 『장신논단』 27(2006), 441-469.
- 김광수. “도래한 포스트 코로나, 과거에 갇힌 교회.” 『기독교사상』 740(2020), 66-73.
- 김완두. “지속가능 자연모사기술.” 『기계저널』 56(2016), 32-36.
- 노윤식. “현대 한국 교회 성장에 대한 종교현상학적 이해.”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0(2001), 237-262.
- 박영신, 정재영. 『현대 한국사회와 기독교-변화하는 한국사회에서의 교회 역할』 서울: 한들출판사, 2006.
- 박우영. “새로운 관계성을 향한 관용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적 이해: 웬디 부라운(Wendy Brown)의 관점을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50(2020), 66-73.
- 박찬섭. 『교회발전과 성령은사』 서울: 엘멘출판사, 1990 재인용.
- 박해정.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온라인 예배에 대한 고찰.” 『신학과세계』 98(2020), 175-216.
- 손의성. “지속가능한 생명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교회의 지역복지 거버넌스 참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2(2014), 311-336.
- 유경동. “코로나19 시대의 웨슬리적 기독교 윤리.” 『신학과세계』 98(2020), 145-173.
- 유재원. “복잡계 이론을 통한 한국 교회의 유기적 예배 가능성에 관한 연구-이머전트 교회 운동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이명구.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친 성장주의에 대한 극복 방안 연구.” 『기독교 철학』 9(2009), 157-187.
- 이은경. “언택트 시대의 예배와 신앙교육.” 『기독교교육정보』 66(2020), 295-322.
- 정광일. “영성과 공동체-복음화, 제자화, 영성화.” 『헤르메네이아 투데이』 46(2009),

187-195.

제해중. “교회의 5대 본질적 기능 재고찰을 통한 포스트 코로나 교회론.”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0)(2020) 233-246.

조기연. “기독교 예배의 본질과 의미.” 『기독교 사상』 652(2013), 26-34.

조용훈. “산상설교의 여섯 가지 반제에 나타난 윤리적 해석과 그 현대적 의미에 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45(2019), 123-157.

조재국. “한국교회 성장 동력의 분석과 평가.” 『신학과 실천』 46(2015), 413-439.

홍영기. 『선교와 교회성장』 서울: 기독교서회, 2004.

기독교타임즈. “미래사회서도 교회성장 지속가능.”: <https://www.km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144> (2020.05.06. 접속).

동아. “거짓말 또 거짓말...이태원발 확진자 최소 154명.”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516/101066600/1> (2020.05.19. 접속).

예장뉴스. “주일성수'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다.” <http://www.pck-goo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07> (2020.05.21. 접속)

Benedict, Daniel T., and Craig Kennet Miller. *Contemporary Worship for the 21st Century: Worship Or Evangelism?* Discipleship Resources, 1994.

Estes, Douglas C. *SimChurch. Being the Church in the Virtual World*. Grand Rapids: Zondervan, 2009.

Hannes, Knoetze. “*Diakonia Trinitatis Dei* as/and Transformational Development.” *The Ecumenical Review*, 71(2019, 1) 147-160.

Wright, Tim. *Contemporary Worship: A Sourcebook for Spirited-Traditional, Praise and Seeker Service*. Nashville: Abingdon Press, 1997.

논문투고일: 2020년 09월 08일

심사개시일: 2020년 11월 16일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21일

• 국 문 초 록 •

코로나19 팬데믹은 빠른 전염성과 치명적인 증상으로 사회의 많은 기능을 마비시켰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접촉이 중요한 개인 방역이 되었다. 코로나 위기로 교회의 현장예배와 식사 교제가 금지되면서 주일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어려워져 한인교회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교회의 지속 가능성은 역발상적인 사역에서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비대면 비접촉 상태에서 현장예배 대신에 온라인 라이브 예배를 드리며, 영상통화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한 몸 되는 공동체성을 지키고 있다. 본 논문은 가상공간에서의 온라인 예배 확대와 비대면 성도의 교제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본질 회복과 공동체성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 지속 가능성의 발판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목회자와 평신도로 구성된 거버넌스는 교회 성장이나 종교성에 얽매이지 말고, 교회가 생명 공동체임을 자각하고 현장과 가상공간에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교회 밖 사회와 새로운 관계성을 맺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직면하는 교회의 지속 가능성은 유기적 예배와 교제를 통한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사회와 협력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논하고자 한다.

주제어: 코로나19, 예배의 본질, 성도의 교제, 비대면 예배, 지속 가능성, 공동체성
